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 유시민은 누구

“민주당 패권주의가 문제... 내가 ‘알박기’ 하는것 아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야권 연대 및 통합에 대해 민주당 등과 대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선은 진보진영 소통합 후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면서 높은 수준(대통합)을 하자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연합이라도 충실히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당에서는 민주당의 패권주의라고 본다.

야권 연대나 통합의 명분은 무엇인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다수 유권자의 이런 요구를 현실화하려면 그들이 지지하는 여러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체성으로 봐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민주당과 선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왜 그분들이 규정하나. 정당은 비

으로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런 게 교과서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보다 모두 다 유효한 방침인데 그중 어디까지 할 수 있는냐는 것은 각 당원들이 대의에 얼마만큼 공감하는가, 또 서로에 얼마나 신뢰가 있는냐, 직업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이익을 버리면 서 큰 뜻에 기여할 수 있는냐의 요소에 좌우된다.

같은 정치적 지향,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치 결사체다. 왜 민주당이 우리 꿈을 규정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권교체가 단기적 목표지만 한국 정치의 혁신이라는 중장기적 목표가 있는 정당이다.



유시민(52) 대표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가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때 감옥에서 쓴 '할소이유서'가 운동권 필독서처럼 읽히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88~91년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독일로 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에는 칼럼니스트, TV 시사토론 진행자, 시사평론가로 활약하며 거침없는 주장과 뛰어난 말·글 솜씨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다.

‘백바지 의원선서’ 논란



유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개혁국민정당 대표 집행위원으로 당을 달렸지만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를 적극 지원했으며 이후 2003년 3월 경기 덕양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유 대표는 '대통령 지킴이' 역할을 자처했으며 등원 첫날부터 면바지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의원선서를 하려다 다른 의원들의 반발로 선서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등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복지부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



2007년 9월 열린우리당 해체 후에 통합민주당에 참여했으나 2008년 1월 탈당, 18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2009년 11월 국민참여당에 입당, 9월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을 그어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통합을 논의할 기초가 없는 단계라고 본다. 일단은 기본으로 연대할 파트너로는 생각한다.

先 진보진영 소통합 後 민주당과 연대 추진

지지율 3% JP에게 DJ는 절반까지도 양보 민주당은 그간 퍼부었던 저주와 모욕 성찰해 보라

Advertisement for ginseng products. Text: '신토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대발견', '평화발효홍삼', '촉석맛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Includes product images and prices.

복지부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장관때 국민연금 개혁